

나는 의사의 충고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네. 폴은 그나마 힘이 조금 회복되었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그 힘을 써서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했네. 나는 시아에서 그를 놓치지 않고 있었기에, 그의 뒤를 쫓아 걸음을 떼고, 도맹그에게 먹을 것들을 좀 챙겨서 같이 나서자고 했지. 이 산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젊은 청년은 기쁨도 활력도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네. 폴은 우산 왕굴나무 지구로 통하는 길을 걸었어. 그러다가 성당 근처에 다다르자 대나무 숲길로 들어가서 새로 파낸 땅이 보이는 곳으로 곧장 걸어갔네. 거기서 폴은 무릎을 꿇고, 하늘로 시신을 들어올려, 긴 기도를 올렸지. 그의 거동이 나로서는 이성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좋은 징조로 보였는데, 무릇 지고의 존재를 향한 이러한 신뢰의 표시는 그의 영혼이 자연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까닭일세. 도맹그와 나는 폴을 쫓아 똑같이 무릎을 꿇고 그와 함께 기도를 드렸네.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서 우리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섬의 북쪽을 향해 길을 나섰네. 나는 폴이 비르지니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바다에서 건져냈는지 아닌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까 왜 저 대나무 아래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는지 물어봤어. 그러자 그는 “그야 우리가 저기 자주 가 있었으니까요!”라고 대답했다네.

그는 숲 어귀에 이르기까지 걷던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